

다산포럼



고 세 훈
고려대 명예교수

전쟁은 진보 정치를 죽이기도, 회생시키기도 한다. 민족과 애국의 깃발 아래 사회주의 힘을 잃지만, 국가 주도의 전시 동원과 그 체제가 준 공동체 경험은 전후 재건의 시기에 좌파 정치가 약진하는 발판이 된다.

영국 노동당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정치가 혼돈과 위기를 겪던 1920년대에 두 차례(1923, 1929)나 (소수)정부를 구성하며 창당 20여 년 만에 수권 정당으로 올라섰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치른 1945년의 총선에선 당 사상 최초로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집권당이 되었다. 앞의 경우는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에 터잡은 보수·자유 양당정치가 아직 엄연하고 러시아혁명 이후 공산주의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던 상황에서 전통의 자유당을 제치고 일궈낸 승리였고, 뒤의 경우는 전쟁 영웅 처질이 이끌던 보수당을 상대로 이룩한 쾌거였다.

노동당 최대의 시련기는 1930년대였다. 대공황의 혼란 속에서 당 지도부가 대거 국민정부로 이탈하고 연이어 1931년

처칠을 생각한다

총선에서 대패하자 의원 수는 이전의 5분의 1 밑으로 급감했다. 1935년 총선으로 노동당(154석)은 잃었던 영지를 웬만큼 회복했지만, 보수당(432석)은 여전히 난공불락의 거대 정당이었다.

영국 노동당 누가 살렸다

2차 대전 발발 무렵에는 국내외의 모든 정황이 보수당을 편들었다. 독소불가침조약으로 스탈린 체제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면서 반사회주의 여론이 거셌고, 자유당은 확연히 정치적 몰락의 길에 들어섰으며, 정치 신참들 일색이던 노동당의 위상에 변화가 있으리란 조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제1야당 노동당을 구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1940년 5월 제임벌린을 대체하여 전시 내각의 총리로 들어선 보수주의의 거두 처칠이었다.

아직 처칠은 영국 노동운동 입장에서 보면 '계급의 적'이었다. 그는 1910년 내무장관으로서 토니판다 광부 파업에 군대 동원과 발포를 명령했고, 러시아혁명 진압을 위한 무력 개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925년에 재무장관으로서 급분위 복귀를 단행해 긴축을 주도했고, 그로써 촉발된 이듬해 총파업에서 적색 공포를 앞세워 초강경 대응을 독려했던 이가 또한 그였다. 처칠이 새 정부 수장이 된다는 소문이 무성할 때 노동당 지도부가 격렬히 반대했던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오래전 처칠이 마침내 총리직을 거머쥐었을 때 그에게 영국을 보수당 전하로

만들 강력한 유인(誘引)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노동당을 정부 구성에 끌어들이는 뿐 아니라, 의석수를 훨씬 상회하는 동지 지분을 전격 노동당에 할애했다. 재무장과 전시 동원을 위해 노동운동의 협조가 절실했음을 감안하더라도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이로써 당 중심이 대거 정부 상층부에 진출하면서 노동당은 정국 운영에서 보수당과 사실상 대등한 위치에 올라섰다.

가령 5명으로 구성된, '내각의 내각'으로 불리던 전쟁 내각에 노동당수 애플리와 부당수 그린우드 등 2명이 부총리와 무임소장관으로 참여하는 등, 새 연립정부에서 노동당은 8명의 각료직을 포함 총 16명이 대소수의 관직을 떠맡았는데, 전쟁 막바지엔 그 수가 27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부총리 애플리는 외교와 전쟁으로 분주한 처칠을 대신하여 국내 문제에서는 실질적인 총리직을 수행했거니와, 영국이 전쟁 초에 벌여 전후 재건을 위한 방대한 개혁 구상을 초당적으로 시작하고 전쟁 막바지에 주요 개혁 프로그램들이 노동당 주도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배경에서였다.

종전과 동시에 들어선 애플리 노동당 정부는 전시에 준비된 개혁안들을 집권 6년 동안 충실히 실행에 옮겼다. 유명한 국민의료체계(NHS)를 포함한 복지 개혁들이 그 시기에 일단락됐으며, 12개 산업이 국유화되었다. 이런 성취는, 대저 정부가 들어서실 때까지, 보수당 정권들에서도 큰 수정 없이 계승되었으니, 전후 영국의 '사

회민주적 합의 정치'의 골격이 그렇게 마련되었다.

처칠은 19세기 말 보수당 개혁파의 '제4당' 운동을 주도했던 아버지 랜돌프를 이어 보수당에서 정치를 시작하고 마감했지만, 보호무역정책에 반대하여 한동안 자유당에 적을 두기도 했다. 탈당과 복당의 분주한 행각을 보인 셈인데, 그렇다고 누구도 처칠의 정치적 처신을 트집 잡지 않는 이유는 그의 원칙과 소신에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처칠은 6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총리로 복귀했지만, 그의 탈당학적 포용 정치는 영국 개혁정치가 불을 지폈고 영국 보수주의를 살렸으며 보수·노동 양당 중심의 정당 체제가 자리 잡는 데 크게 공헌했다.

상대를 품는 포용의 지혜

작금의 한국 정치 지형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어떤 돌발 변수로 인해 급변할지 알 수 없으니, 딱하고 지리멸렬한 야당일지라도, 깨워서 일으키고 살려 내야 한다. 어르고 달래는 역지사지를 넘어, 상대방의 상투적 주장조차 상투적으로 내치지 않는 것, 그런 진정성이 지혜다.

집권당 세가 압도적일수록, 한국 정치의 중장기적 진운과 관련한 역사적 책임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포용은 강자의 몫이자 자신감의 표출이며, 확신은 숫자보다 원칙에서 나오는 법, 상대를 품지 못하는 원칙이러면 야당과 냉소가 빛은 허상이기 쉽다. 무릇 변치 않는 것은 없다.

교단에서



김 진 구
우산중 교감

운동장에 만국기가 걸렸다. 체육대회 날이다. 며칠 전부터 날씨 예보를 반복적으로 확인했다. 옛날에는 비 걱정만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미세먼지에 더 민감하다. 건강을 위한 체육대회가 미세먼지를 더 깊이 마시는 몸 망치는 날이 되기 쉽다. 앞으로는 학사 일정을 잘 때 체육대회만큼은 몇 차례 연기가 될 것을 가정하고 계획해야 할 것 같다.

본관 3층에서 시작하여 부첫살로 퍼져나가 운동장 건너편 느티나무에 묶인 여섯 줄에 여러 나라 국기가 펄럭인다. 수평으로 매달려 바람에 나부끼는 저 국기들처럼 세상의 나라들도 평등할까. 어릴 적 국민학교(초등학교) 가을 운동회가 떠오른 것도 만국기의 효력이다. 희한하게도 만국기만 보면 먹여가는 감, 파란 하늘, 코스모스, 가을 운동회가 추억으로 펄럭

우레탄과 DDT

인다. 유년의 기억 때문일 터이다. 유년의 체험은 마음에 짙게 물들어 평생을 함께 하기에 소중하다. 깊은 주름살의 흰머리 동장보들이 저 만국기 아래로 뛰어 모일 것만 같다.

하늘에 만국기가 있다면, 땅에는 백회가루 흰 선이 뜰뜨게 한다. 계주 원형곡선과 단거리 직선이 선명하다. 운동장 둘레에는 잡초가 자라지 못하도록 소금을 뿌려 놓았다. 소금은 잡초 방제뿐만 아니라 보습도 좋아 심한 먼지도 잡아준다. 소금과 하얀 라인으로 운동장이 빛났다. 흙모래 운동장이 건강하게 보였다.

사제 축구 경기에 출전하였다. 학생과 공을 두고 다들 때도 그렇지만 학생이 가까이만 와도 위축됐다. 모처럼 패스 받은 공을 잡으려 뛰어갔지만 마음만 공을 따라갈 뿐, 몸은 공하고 멀어간다. 숨은 턱까지 차오르고, 몇 차례 넘어져 얼굴은 흙 범벅이다. 30분을 뛰었는데 마지막에는 오고가는 공을 눈으로만 따라다녔다. 학생들은 날쌔고 강건했다. 스카이크에서 튀기는 흙모래에도 거침이 없었다.

2006년부터 인조 잔디와 우레탄이 학교 운동장의 흙모래를 덮기 시작했다. 선진화된 체육시설로 스포츠 복지국가를 앞당겨 실현한다는 기치 아래 국민체육

진흥공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2016년 기준 전국 2700여 학교에 5000여억 원의 우리 세금을 쏟아 부었다. 인조 잔디와 우레탄을 깐 학교는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우레탄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학교의 교장은 큰 업적으로 여겼다. 그러나 자랑스러운 이 체육시설에는 남·카드롬·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유해 화학물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 빈도나 위해성에 대해 정부나 환경단체의 견해가 다르고 관련 규정이나 기준이 강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지만 10개 학교 중 8개 학교는 철거해야 한다. 10년 만에 다시 우리의 세금으로 걷어 내고 있는 중이다.

학교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인조 잔디와 우레탄 트랙을 모두 깔려면 약 3억 원 내외의 돈이 든다. 그런데 이를 철거하고 폐기하는데 6천만 원에서 1억 원, 다시 배수 시설하고 마사토 까는데 역대 최고의 비용이 들어간다. 헛돈도 문제지만 성장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학교 시설물에 어떻게 유해 물질이 섞여들어 올 수 있었을까. 특정 지역, 특정 제품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말이다.

“몸을 알리는 철새들의 소리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때 새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가득 찼던 아침은 이제 어색한 고요함뿐이다.”

레이첼 카슨이 쓴 ‘침묵의 봄’(1962년)에 나온 한 대목이다. 봄이 침묵한다는 이 책의 제목은 환경을 오염시킨 인간의 잘못을 소름 돋도록 상징하고 있다. 살충제로 사용된 맹독성 화학물질 DDT(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의 폐해를 고발한 것이다. 운동장에 뿌려진 소금처럼, 백회가루처럼 이불에 베게에 내복에 뿌려지고, 머릿니나 서개를 죽이기 위해 머리에도 이 백색 가루를 뿌렸던 아픈 기억이 있다. 1942년부터 쓰기 시작한 DDT는 이 ‘침묵의 봄’으로 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통해 생명체에 축적된다는 것이 알려져 1972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되었다. DDT는 30년 만에 금지됐고, 우레탄은 10년 만에 교체되고 있다.

그런데 어느 기관 누구 하나 반성의 소리는 없다. DDT는 ‘침묵의 봄’을 만들었고, 우레탄은 ‘침묵의 운동장’이 되었다.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이 아니면 흙을 밟아 볼 공간이나 시간이 없다. 이런 추세라면 가정과 학교 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흙놀이나 흙을 밟게 하는 체험학습이 좋은 교육과정의 하나로 자리 잡지 않을 까 생각해 본다.

기 고



남 진 수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중국 강서성(江西省) 사회과학원 대표단이 방한해 지난 17일 광주전남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과 중국의 농업, 특히 차 산업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차 재배 규모가 100만ha인데 비해 강서성은 200배인 2억ha로서 중국내에서도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명·청시대에는 전체 성 세금의 절반 이상을 차 세금이 차지할 정도로 번영을 누렸으나 최근에는 커피 등 대체 음료의 확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2009년도 차산업 규모가 7500억 원 인데

차(茶) 이야기

비해 2017년에는 3400억 원으로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반면 커피산업은 작년 6조 3000억 원 규모로 매년 비약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 1인당 연간 차 소비 규모도 80g으로 아일랜드 296g, 영국 224g, 일본 1140g에 비해 비교 자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왜소한 실정이다.

중국은 차의 고향으로 세계 각국의 차 문화는 중국에서 유래되었다. 1606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자바에서 마카오로 이전하면서 최초로 차를 유럽에 수출하였다. 특히 영국은 오후 티타임이라 부르는 다과회가 유행함에 따라 중국에서의 차 수입이 급증하였다. 영국은 이로 인한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인도의 아편을 중국에 수출하는 3각 무역을 발달시켰는데, 이는 유명한 아편전쟁으로 발전하였다. 미국의 독립은 영국의 식민지 미국에 대한 기혹한 차세 부가에 따른 보스던 차 사건으로 촉발된 만큼 차는 세계사의 중요한 흐름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차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이유는 다(茶)가 하나의 예술이며 정신 수련에

좋기 때문이다. 차는 마음이 편안하고 주변 환경이 조용하고 유유자적해야만 진정한 맛을 알 수 있다. 불교는 민간에 차 마시는 풍습을 널리 보급하는데 일조하였다. 불교 신자들의 수양 생활의 중요한 일환이 좌선이다. 불교의 선종(禪宗)은 좌선 방법으로 다도를 매우 중요시했다.

당송시대 다도는 중국의 사대부, 관리들의 필수교양으로 자리 잡았으며 손님을 초청해 차 품평회를 갖는 것이 유행하였다. 차 맛뿐 아니라 못맛, 다구의 아름다움도 같이 평가해 일류 다구는 같은 무게의 황금보다 더 비쌌다고 한다. 중국 당나라 시대 재상 이덕유는 무석 지방에서 나는 혜전수로 차를 끓여길 좋아해 혜전수를 항아리에 담아 봉하게 한 후 무석에서 장안까지 1300km 이상 거리를 역참을 이용해 운송하게 하였다. 유일한 예외는 북송시대 개혁가 왕안석으로 다도의 문외한이어서 정적으로부터 소인이라고 비판받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차 애호가이자 북송 4대 서예가 중 한 명인 채양이 하부는 왕안석을 초청해 절품차를 팔라 손수 다구를 씻고 물을 끓여

차를 타서 대접한 뒤 정찬을 얻고자 했다. 생각지도 않게 왕안석이 기침약을 꺼내 찻잔에 넣어 같이 타 마시자 채양은 아연 실색하여 멍하게 앉아 있었다고 한다.

중국의 차 산업은 현재 자극성 있는 커피 등 대체 음료의 수요 급증으로 인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명차에는 그에 걸맞은 전설이 있는데, 이러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차가 아닌 문화를 판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좋은 차나무는 높고 험한 절벽 위에서 야생으로 자란 것을 최고로 친다. 중국 안탕산의 차는 원숭이를 이용 찾았을 채취하는데 ‘원숭이 노예 차 : 후노차’로 스토리텔링에 성공하여 관광객 유치와 함께 절품차로 비싸게 파는 데 성공하였다.

보성군에서도 차산업 관련 스토리텔링을 위해 보성 녹차 축제, 차 관련 길 조성, 세계 차 식물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스트레스 많은 일상에서 벗어나 이번 주말에는 보성 녹차밭을 찾아 한잔의 차로 여유롭게 즐기는 작은 사치를 누리며 어떨까.

社說

무관심 속 지방선거 그들만의 리그 막으려면

6·13 지방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선거 분위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 일꾼을 뽑는 선거가 중앙의 대형 이슈에 가려져 자칫 ‘후방의 리그’로 전락하고 투표율마저 낮아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남북 정상의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 이후 국민의 관심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쏠려 있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은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으로 예정돼 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법안도 아예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선거는 이들 대형 이슈에 파묻힌 형국이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자 정책 경쟁보다는 ‘대통령 마케팅’에 치중하며 당내 경선에만 집중했다. 이에 맞선 야당들도 뚜렷한 선거 이슈를 제시하지 못했고, 일부 정당은 단체장보

무등산 군부대 이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무등산이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는 경사가 있었다. 하지만 주에는 이 경사스런 일이 있을수록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가 열렸다. 곳은 날씨임에도 많은 시민들이 무등산 정상을 찾았다. 안개가 끼었지만 시민들은 몽환적인 산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에 바빴다.

그러나 광주 시민들은 1년에 몇 차례 개방되는 무등산 정상을 오르면서도 늘 아쉬운 속에서 산을 내려오곤 한다. 무등산 정상에 있는 군부대 때문에 야무 때나 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은 광주 시민들의 숙원 사업이다.

하지만 무등산 정상 방공포대 이전 사업이 장기화될 전망이다이라고 한다. 국방부가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해 방공포대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최근 국방부 방문해 군부대 이전을 협의한 결과 ‘광주 군 공항 이전이 확정된 이후에 나 그 주변의 부지를 찾아 추진할 수 있

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시로서는 군부대라는 특성상 국방부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의 반발과 표를 의식한 지역정지권에서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공포대 이전 추진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방공포대 이전과는 별개로 현재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도 선거를 앞둔 데다 전남 지사 등 자치단체장이 공석이어서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군 공항 이전 후보지 결정은 빨라도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사업도 그만큼 늦춰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무등산을 시민의 품에 돌려주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지방 선거가 끝나고 새로 뽑히는 시장과 도지사는 곧바로 국방부와 협의해 군 공항 이전을 확정함으로써 무등산 군부대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아 게르니카의 화살도 이렇게는 처참하지 않았으니/ 아 악마의 음모도 이렇게는 치밀하지 못했으니.”(김남주, ‘학살 1’중)

금남로 3가에 자리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1층에 들어서면 투명한 유리관 위를 밟고 통로를 지나가게 된다. 발 딛고 선 유리관 밑으로 운동화와 고무신, 하이힐 몇 켤레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또 단군대 깃발과 단피 몇 개가 떨어져 있다. 1980년 5월 21일 ‘피

고 아직까지 실제가 규명되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 현장 지휘관들은 ‘자위권 발동’을 내세워

사건 약속된 것처럼 공수부대원들은 비무장 시민들에게 집단 발포를 했다.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와 대치 중이던 맨손의 시민들이 순식간에 총에 맞아 아스팔트에 쓰러졌다. 길 한복판에서 대형 태극기를 흔들던 청년들도 저격수 손 총에 맞아 쓰러졌다. 이때 최소 54명이 숨지고 500명 이상이 총상을 입었다.

이날 맨주먹의 시민들에게 총을 쏘도록 명령한 자는 누구인가? 1988년 12월 청문회를 비롯해 많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고 아직까지 실제가 규명되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 현장 지휘관들은 ‘자위권 발동’을 내세워

위 당시 상황을 왜곡시키고 있다.

심층은 있다. 5·18 당시 광주 505보안부대 수사관이었던 허정환(70) 씨는 최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광주를 다녀간 뒤 그날 밤 자위력 구사라는 미명 하에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5·18 진실 규명은 무수한 조각들을 맞추는 퍼즐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실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부추했던 공백이 차츰 채워지고 있다. 미지않아 발포 명령자의 실체도 드러날 수 있을 것이 다. /송기웅 예방부장 song@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안 실 220-0536	서 울 시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